



기억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

글 · 심성보 ssb@dssb.pe.kr



홀로코스트기념관 수석 아키비스트 헨리 마이어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 초청

지난달 28일(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 초청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국제학술 컨퍼런스가 서울 YMC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홀로코스트기념관은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6백만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박해와 살육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유례없는 비극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념하여, 인류가 그 책임감과 도덕성을

상기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더욱이 홀로코스트기념관 내에서 기록을 수집·보존하여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아카이브즈는 모범적인 기록관리 기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 현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히 사료관을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는 사업회로서는 당연히 홀로코스트기념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주요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국제행사는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8일(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 이어, 이튿날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매뉴스크립트 관리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라는 주제로 기록관리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주제로 교육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다.

“현재를 통해 재구성된 기억, 우리 역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역사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며, 때로 기억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기록은 역사를 구성하는 기억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나 해석된 과거, 즉 역사는 기록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적 기억은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 오늘의 한국사회에 화두처럼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같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기억되고 재생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듯한 행사 취지 안내문에 공감하여, 컨퍼런스에는 1백 50명이 넘는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컨퍼런스는 제 1부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홀로코스트의 경험’과 제 2부 ‘사회적 집단기억과 역사교육을 통한 현대한국의 성찰’, 제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행사를 위해 초청된 홀로코스트기념관 수석 아키비스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헨리 마이어는 홀로코스트기념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컬렉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교사아웃리치프로그램 디렉터 스티븐 파인버그는 홀로코스트기념관의 목적을 대중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전문가였다. 이들은 경륜과 열정이 절로 느껴지는 60세 전후의 전문가로서, 오랜 친구들을 대하듯 성심성의껏 청중에게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을 소개했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생생한 기록

제 1부 첫 번째 발표는 헨리 마이어의 ‘홀로코스트기념과 아카이브즈를 통해 본 홀로코스트의 집단기억’ 이었다.

영어 명칭이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인 홀로코스트기념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1979년에 당시 대통령 지미 카터에 의해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80년 미국 국회가 기념관의 계획·개발·운영을 담당할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위원회의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고 했다. 1986년부터 본격적인 기록수집 활동에 착수하여 1993년 4월에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현재까지 8백만 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2천 7백만의 관람객이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카이브즈는 20년 동안의 수집활동 결과, 박물관, 개인기록, 회고록 등 다양한 형태로 1만 3천여 점, 1억 7천만여 쪽을 보유하고 있으며, 9천여 명의 구술사 기록과 역사 다큐멘터리 1천 시간 분량 그리고 사진기록 8만 점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헨리 마이어는 기념관이 범죄의 증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개인·정부·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차 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존 또는 사본 제작을 통해 관련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워싱턴DC의 보존소에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진 결과이며 대량학살 기념관이나 인권·정의에 관한 기념관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가족사를 복원하게 해주는 등 ‘집단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종조부와 종조모가 나치에 희생되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를 실증했다.

헨리 마이어는 홀로코스트기념과의 역사와 임무 그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을 전해주었는데, 1년 예산이 6천만 달러 정도이고 그 가운데 55%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45%는 민간 지원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점,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키비스트 7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군이 존재한다는 점, 직원 이외에 1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

동하고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정보도 전해주었다.

청중 가운데, “기록 중 상당 부분이 가해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일텐데 어떠한 난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가해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은 비공개로 한다든가, 가해자 모국에서는 비공개로 한다든가 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첨부해서라도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록을 이용한 역사교육

제 1부의 두 번째 발표는 스티븐 파인버그의 ‘홀로코스트 기록을 이용한 역사교육’이었다.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평가의 문제보다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면서, 그는 1996년부터 시작한 교사회원 연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중·고교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나 커뮤니티 그리고 전문가 조직 내에서 홀로코스트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기념관에서 매년 개최되는 5일 동안의 집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배출된다고 했다. 사서나 미디어교육 전문가 이외에도 역사, 사회과학, 외국어, 국어 교사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배출되어 현재 49개 주에 걸쳐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기념관에서는 1명의 상근자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일회적인 연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영국, 남아공에서도 이 프



홀로코스트기념관 교사아웃리치 프로그램 디렉터 스티븐 파인버그



로그래미 적용된 사례가 있고,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소수의 홀로코스트기념관 직원으로서도 추진할 수 없는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이들 교사회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에 기념관의 웹사이트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웹사이트(www.ush

mm.org)의 풍부한 기록정보를 소개했다.

역사교육을 통한 우리의 기록문화

제 2부는 '사회적 집단기억과 역사교육을 통한 현대한국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 2인이 발표했다.

첫 번째는 '대항기억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전진성 부산교대 교수가 발표했다.

'과거청산'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선명할지 몰라도, 문제해결의 원칙과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고 애정 어린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독일 역사학계에서 '과거청산'이 아닌 '과거극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해결방식으로 제시한 '역사화'였으며, 다음으로는 '트라우마와의 대면'이었다. 과거의 진정한 극복은 '대항기억'을 통한 역사의 정치화와 역사화를 넘어, 피해 당사자 개개인이 자신의 실존적 고통과 직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 원폭피해자 2세의 삶을 소개하면서, 과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피해자 당사자 더구나 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들이 도외시되는 한 어떠한 종류의 특별법 제정도 성찰적인 '역사화'도 허식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역사교육과 기록, 기억'이라는 주제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발표했다.

일제식민지 잔재,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과 민간인 학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3중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를 걸머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현시점은 과거사에 대

해 피곤증을 느낄 단계가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통에 대면해야 상처의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과거사 극복을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확충하여야 함을 역설하면서, 자세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는 과거사를 드러내는 데는 엄정한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피교육 대상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발표문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중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명환 한국외대 교수는, 홀로코스트기념관과 한국의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 사례의 차이점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은 사건의 현장과 떨어져 있는 곳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해자와도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 민주주의전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바로 그 현장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홀로코스트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 미국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경험을 이미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오랜 전통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며 기록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본 경험이 박약하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나섰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역설했다.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가는 한 시대 문명의 수준을 증명하는 척도다. 세계 각지의 어두운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각각의 민족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며, 인류의 범주에서 조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억과 기록은 사실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제이다. 기억과 기록이 없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과 기록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다.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과거사를 잘 정리해 나가면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성취하는 모범으로서도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면에 다 실지 못한 당일 발표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